제117회 대공연 의소분 인수인계서 1차

57기 황의주

**1. 대본분석**

의소분팀은 대본분석을 대강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가장 열심히 해야 하는 팀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극의 분위기와 인물 그리고 소품들을 파악하는데 앞서 대본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대본을 정독하고 2차 정독 때 장면전환을 고려하여 인물들의 의상과 소품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의소분 팀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의상**

이번 공연은 시대극이라서 의상을 구하는데 무리가 있었지만 지원금이 있었기에 많은 구매가 가능해서 성공적으로 의상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대공연에는 의소분에게 짜여진 예산이 매우 적기에 공연진, 지인, 극회 사람들을 통해서 빌리는 쪽으로 옷을 구해야만 합니다.

일단 옷을 본격적으로 구하기 전에 필요한 의상 리스트를 만들고 의소분 팀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상의 이미지를 표에 첨부하여 연출님의 컨펌을 받는 것이 앞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구할 때마다 연출님에게 컨펌을 받은 후 의소분 팀과 공유해야 합니다. 수월하게 이미지를 맞추기 위해선 평소에 장면연습과 연출팀과의 미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소품**

의소분 팀은 공연의 작은 소도구들을 구하는 것이 일이며, 침대나 쇼파 등의 대도구들의 무대팀의 담당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소품도 의상과 마찬가지로 대본을 정독하며 소품 리스트를 만들고 연출의 컨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소품은 빠지게 되고 또 연출님이 원하는 소품들은 추가되게 되면서 소품 리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번 공연에서 소품들이 늦게 구해지게 되어 많은 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 했을 때 소품은 되도록 최소한 공연 3일 전까지는 완벽하게 구해지도록 명심하여 주세요. 캐스트들이 소품을 연기할 때 익힐 수 있도록 빨리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 분장**

분장은 시연회를 통하여 미리 연습해보고 연출팀과 의논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공연날 오퍼 때 어떻게 분장해야 할지 막막하고 싶지 않다면 시연회 때 미리 꼭 분장을 보고 해보는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오퍼 콜은 공연마다 다르겠지만 캐스트들의 뒤깎이 타임을 고려하여 아침시간과 저녁공연 1시간전 수정화장 시간일 것입니다. 극에 따라서 공연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꼭 팀내에서 오퍼 시간을 정해 서로 지켜줘야 합니다. 화장품들은 이번 공연의 경우 전체 극회 사람들의 기부를 받아서 진행되었으나 딱히 필요한 화장품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의소분 개인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기부된 화장품이 남아 있으니 다음 공연 때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